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에 관한 결의안

의안 번호	258
----------	-----

발의연월일 : 2009. 12. 18.

발의자 : 고기판 의원

1. 주 문

1979년 9월 26일 구로구가 신설되고 1980년 4월 1일 고척동이 구로구로 편입 되었지만, 고척동 소재 영등포교도소 명칭이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교도소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을 촉구·결의함.

2. 제안이유

- 영등포교도소는 행정구역상 부천군 고척리에서 1949년 12월 부천형무소로 개칭되어 1961년 부천교도소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1968년 영등포교도소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197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9630호)공포에 의거 구로구가 신설됨에 따라 1980년 4월 1일 자로 고척동이 구로구로 편입되었지만 명칭 변경 없이 지금까지 영등포교도소로 불리어 오고 있음
-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수도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영등포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에 관한 결의안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자치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인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행정구역이 개편 된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로 우리 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41만 모든 구민과 함께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교도소는 행정구역상 부천군 고척리에서 1949년 12월 부천형무소로 개칭되어, 1961년 부천교도소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1968년 영등포교도소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9630호)공포에 의거 구로구가 신설되고, 1980년 4월 1일 자로 고척동이 구로구로 편입되었지만 명칭 변경 없이 지금까지 영등포교도소로 불리어 오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침,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의 지역개발에 따른 계획에 의거 2009년 11월 13일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로 이전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68년 당시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명되어온 명칭이라면 새로이 준공될 위치에서 만큼은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라는 우리의 지명이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어 “희망찬 영등포” 우리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41만 영등포구 모든 구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영등포구의회의원 16인